

월요광장

공유의 시대, ‘우리’ 음악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매년 7월이면 서울 국립극장에서 ‘여우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페스티벌 이름 ‘여우락’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줄임말이다. 이 페스티벌은 한국 전통 음악을 양식적 축으로 삼아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축제로 전통음악의 현대화와 관련한 트렌드를 일별하기에 좋다. 이 때문에 매년 페스티벌 라인업이 발표되면 광주에서의 개인 일정과 조율하면서 두 세 편의 공연이라도 예매하여 챙겨 보곤 한다.

하지만 서울까지의 물리적 거리 탓에 매년 보고 싶은 공연을 놓치는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은 거의 모든 공연을 볼 수 있었다.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광주에서, 그것도 내 집 거실에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 공연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를 하기로 한 주

최 측의 결정 덕분이다.

공연계의 전반적 현실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거시적 시각에서 ‘코로나 이전’의 현실 가운데 한 가지는 문화적 전 지구화였다. 사실상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기에 가속화된 문화적 전 지구화 과정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한국 전통음악계일 것이다.

워멕스(WOMEX, 월드뮤직 박람회)로 대표되는 전 지구화된 공연 플랫폼을 활로로 삼아 국내 전통음악계의 음악인들이 해외 공연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전통음악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서 거론한 국립극장의 ‘여우락 페스티벌’은 이러한 문화적 전 지구화의 경향을 비추어 보이는 거울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문화적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전망과 관련하여 전 지구화가 쇠락하고 민족주의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러 면에서 국경은 닫히고 내수 시장과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 전 지구화도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의 회귀

는 바람직하지도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거침없이 진행되어 온 문화적 전 지구화를 다른 차원에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8월 21일부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하 ‘ACC 페스티벌’)은 이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여파로 이번 ‘ACC 페스티벌’의 라인업에는 해외 초청 뮤지션이 사실상 없다. (미국 아티스트와의 온라인 실시간 연주를 시도하는 ‘텔레마티 앙상블’이라는 프로그램 한 가지만 마련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초청 뮤지션의 면면은 이전보다 더 화려해졌는데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전통음악 기법의 국내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 까닭이다. 전반적으로 ‘여우락 페스티벌’을 광주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다.

다만, ‘여우락’의 ‘여기 우리 음악’이 ‘서울’에서 상상되는 한 ‘한국음악’이라는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함의에서 온 전히 벗어나지 어려웠다. 이에 비해 광주의 ‘ACC 페스티벌’은 하이라이프 공연인 김일규-안옥선-이난초의 ‘남도 레거시’ 무대로 대표되듯, ‘여기 우리 음악’이 ‘남도음악’으로, 구체적 지역성과 연

결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 지구화를 향한 음악공연계의 흐름과 변화에 제동을 거는 현 상황에서 성찰해 볼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지난 시기까지의 문화적 전 지구화가 ‘우리 음악’의 ‘우리’를 ‘한국인’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 확장시켜 줄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 속 자신의 장소를 의식하고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는 ‘지역민’으로 그 ‘우리’를 구체화시킬 단계가 된 것이다. 후자의 과정이 없다면 전자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서두에서 예를 들었듯 서울의 음악축제를 광주에서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비대면 온라인 공유 문화를 통해 장소-공간-국경을 넘는 음악적 소통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온라인 공유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구체적 장소에 대한 상상력을 촉구한다. 요컨대 ‘코로나 이후’ 음악적 소통의 주체는 ‘우리 음악’을 상상함에 있어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구호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 펼쳐지는 구체적 장소와 지역의 전통을 떠올리며 그 현대성을 가능할 수 있는 ‘세계 시민적 지역민’이 될 것이다.

꿈꾸는 2040

진보의 시대정신은 아직 유효한가?



오태하 위민연구원 운영위원·전남대학생

최근 정의당 비례 대표인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이 많은 이들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하는 품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집단인 국회가 파격적인 옷차림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진보를 맞이한다는 지지의 의견도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서로 간의 혐오가 난무하는 갈등의 진원이기도 했다. 필자는 바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진보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과 관련한 논란을 지켜보며, 어떤 국민들은 어딘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류 의원

을 직접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싶지는 않다. 그 행위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것은 류호정이라는 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정치인이자 국회의원 류호정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입 밖으로 꺼내 보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사회로부터 받을 이른바 ‘판대’라는 낙인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비판적 의견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자신이, 실제로 이번 사건에 존재했던 ‘성차별주의자’나 ‘혐오주의자’ 등과 같이 비쳐지거나, 대우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역시 존재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을 ‘진보의 배척성’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쉽게 말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이 ‘진보적 발상’으로 인정한 하나의 방향성을 절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이권자(興業者) 집단에 대한 두려움 정도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겠다. 진보적 이념이 한 덩어리라고 같이 취급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토록 정교하게 절대화된

‘진보’가 야기하는 두려움이 다양성을 억누를 정도로 거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갈등을 통한 진보를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의 방향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다뤄보자면, 어떤 딱딱한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회의원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냉소 섞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일견 일리 있는 시각이다. 그리고 이것은 방법 없는 운동과 지나치게 격렬한 절대화가 빚어낸 염세주의적 태도일 것이다. 진보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운동에 치중하며 의견을 절대화할 때,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렇기에 진보에는 치열한 과정과 방법,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을 둘러싼 논란이 극심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덩어리라고 착각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토록 정교하게 절대화된

열한 과정’이 존재했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노동 환경에서, 전보다 편한 복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회사의 복장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옷차림을 보여주었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류 의원의 옷차림은 치열함도, 방법도 부족한 채 행 무관심이 덩그러니 국민의 앞에 놓였고, 어떤 국민들은 그것을 강요받게 되었다.

2017년, 무능하고 타락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 시민 혁명의 힘은 ‘평등’과 ‘공정’,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끌어올려 무재인 정부의 강력한 동력인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이른바 개혁 진보 세력의 절대적인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3년 차 범진보 세력이 국회의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서로 간의 혐오만 남아 버린 지금, 필자는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보다 먼저 진보의 시대정신은 아직 유효한가?

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도시 공동체적 삶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만들기



이종하 목포대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며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젊은 층과 노년 층 간에, 그리고 지역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적 협력 대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각 개인이나 각 집단별로 각자도생하는 방식이 판을 친다.

우리가 건설하고 조성한 도시 환경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의 폭과 깊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는 접촉면을 넓힐 때 공동체적 협력과 유대감이 증진된다. 그런 점에서 교류의 바탕이 되는 물리적 장소인 소위 사회적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도서관·학교·놀이터·체육시설·수영장 등이 대표적 사회적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에서는 친구들이나 이웃들끼리 만나고 서로를 지지하며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반면, 사회적 인프라가 낙후되었거나 퇴화하면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의 은신처에 몸을 웅크릴 것이다. 사회 연결망은 느슨해지고 범죄율은 증가하며, 노인들은 고립되고 젊은이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든다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면 도시 주민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사회적 인프라의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 개수의 단순 양적 지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질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요구나 이용행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도서관 같은 사회적 인프라는 문화 공간으로서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도서관은 북클럽 활동이나 영화 상영, 미술 및 음악 수업, 시사 토론, 컴퓨터 수업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문화센터이자 친목 도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원과 녹지도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또한 요즘 각국이 ‘고령화 인구를 위한 장소 만들기’ 사업으로 공원과 녹지를 활용

하는 사례도 의미가 있다. 스페인의 노인 공원, 런던의 시니어 놀이터, 또 핀란드의 나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삼대를 위한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철로나 부두처럼 이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오래된 하드 인프라를 활기찬 사회적 인프라로 탈바꿈하는 일도 필요하다. 광주에선 경전선 폐선 구간을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또 뉴욕 맨해튼의 하이 라인과 같이 고가 형태로 만들어진 폐철로를 선형의 공중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예는 유명하다.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인프라가 지니는 공동체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섬세한 계획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었다.

셋째, 전통적인 하드 인프라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설계를 다르게 하여 사회적 인프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야 한다. 홍수를 막기 위한 일반적 인 독은 단지 물리적 인프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불구불한 돌담 겸 산책로가 되도록 공인 형태의 독을 건설한다면 그것은 물리적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교류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기후 대책을 위한 재해 예방 시설이 동시에 사회적 인

프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의 물의 광장 설계가 그 사례이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개의 수조로 이루어진 물의 광장을 만든 것이다. 강우 시에는 물의 담는 수조 역할을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수조가 스포츠 경기장으로, 댄스 플로어로, 그리고 스케이트장이 되도록 각각의 수조 바닥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면서 강제적 혹은 자발적 고립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향후 비대면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일정 부분 불가피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뜻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는 사회 안전망도 아니고 또 모임 장소도 아니다.

사실 인터넷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주요 사회적 인프라가 된 하나의 이유는 현실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만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공동체적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社說

광주·전남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광주·전남 지역에 지난 사흘간 최고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열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홍수와 침수로 인해 3000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곡성 587mm를 최고로 구례 541mm, 광주 북구 533.4mm, 담양 418.6mm, 화순 398.8mm, 장성 394.8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많은 이재민(광주 433명, 전남 2774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초등학교나 교회·마을회관에 대피 중이다.

주택과 농경지·축사·양식장 침수도 잇따랐다. 주택은 광주 328채, 전남에서 1898채가 물에 잠겼다.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 침수 면적은 6823ha에 이른다. 126 농가의 축사도 침수·매몰 피해를 입어 가축 21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육상 양식장 역시 여덟 곳이 침수돼 뱀장어와

철갑상어 등 432만여 마리가 유실됐다. 곳곳에서 제방·철도·도로 등 시설물도 파손됐다.

하지만 침수 지역의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복구에 임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더욱이 복상하는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내일 광주·전남에는 100~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장마는 유례없이 길게 이어지면서 저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장마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 상황을 유지하면서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주·전남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공공·사유 시설 복구와 피해 수습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119 수상구조대 인력·장비 확충 시급하다

‘119수상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피서객은 물론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얼마 전 구례 피아골 계곡에서는 피서객을 구하려던 청년 20방교가 소방 장비인 안전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숨지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소방관 장비가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할 수 있는 거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라는 청원이었다.

119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휴가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때 지역별 소방센터와 119구조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여기에 파견 형태로 이뤄지는 수상구조대 인력 확보 역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소방관들의 희생이 잇따르면서 소방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날 말까지 예정으로 전남 지역 41개 해수욕장과 강이나 계곡 등에서 93명의 소방 인력을 동원해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휴가철에만 수만~수십만 명이 찾는 유원지 한 곳당 배치된 구조 인력이 고작 2.2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수상구조대의 인력 부족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구례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하려다 숨진 소방관 사고도 그렇다. 안전줄 설치 작업에 최소 네 명의 구조대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당시 인력은 두 명밖에 없었다. 인근 소방센터까지 거리도 멀어 추가로 구조대원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력 뿐만 아니라 구조 장비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이들의 생명을 나라가 지켜 주어야 한다.

無等鼓

최근 지구촌 뉴스에 ‘스톤헨지’와 ‘피라미드’라는 두 개의 오파츠(OOPARTS, Out-of-place artifacts: 장소 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유물)가 한꺼번에 등장했다. 이들 두 건축물은 지난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불러일으켜 왔다. 하지만 이번 뉴스로 인해 ‘역사학적·고고학적·고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물체’를 뜻하는 오파츠로서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스톤헨지’는 용도와 목적 등이 분명치 않은 데다 평균 20t 무게인 거대한 돌의 출처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사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최근 영국 셰필드대학의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돌은 25km 떨어진 웨스트우즈에서 조달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운반 방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 역시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말 자신의 트위터에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지었다. 분명히”(Aliens built the pyramids obv)라고 쓰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선조들이 만든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지었다고 하는 데 발끈한 이집트 당국은 “피라미드 건설자는 이집트인들로, 머스크의 주장은 완전한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반발했고, 머스크는 금방 ‘피라미드는 인류 최고 건축물’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사실, 신비감을 잃어버린 것은 스톤헨지나 피라미드뿐만은 아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의 창조·운영 원리가 속속 확인되면서 인류 이성은 신비(神祕), 절대(絶對), 영원(永遠) 같은 개념을 ‘과거의 유산’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나 물건에 덧씌워진 ‘신비’라는 베일을 벗겨 낸 지 오래다. 이제 남은 것은 ‘권위’라는 베일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부 정치·사법 세력이 부패한 민낯을 감추기 위해 ‘권위’라는 베일을 둘러싼 채 자신히 버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이라는 집단지성이 ‘세상의 모든 권위’라는 이름의 베일을 벗겨 낼 시간도 멀지 않았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